

브라질, 파소 끈도, 구체적인 몸짓 사업이 12 차를 맞이하다!



10월 13일, 물리치료사의 날을 기념하여 노틀담 병원(줄리아 비야르, 나오 메 또궤, 상 세바스티앙, 에스뿌모조)은 12 차 구체적인 몸짓 사업을 개최했습니다. 연대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보조하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올해는 약 2백명의 어린이들이 이 사업으로 혜택을 입었습니다. 수혜자들은 나오 메 또궤의 티아나스타샤, 티아 시빌라 학교, 에스뿌모조의 시립 어린이집 아이들이었습니다.

사업 조율사인 마가레테 세루티 수녀는 직 간접적으로 관여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다음과 같은 말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

“기부 물품을 나누어 주는 동안 우리가 체험하는 아이들의 미소는 이 사업을 계속하게 만드는 자극제에요!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이 꼬마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을 키웁니다.”